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둘째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둘째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둘째주를 통해 대림절의 소망과 기다림을 담은 기도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12월 둘째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가 특별히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추운 겨울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기도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둘째주 (1) - 대림절 소망의 기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태복음 3:3)

12월의 차가운 새벽공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둘째주를 맞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셨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12월 둘째주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바쁨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초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기쁨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며, 거룩한 기대감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맞아 따뜻한 보금자리가 없는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나눔과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모두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둘째주 (2) - 평화의 주님을 맞는 기도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사야 9:6)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2월의 추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미움과 다툼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 지역의 분쟁도 끝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 둘째주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하고 완전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은 사랑으로, 원망하는 마음은 용서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우리부터 먼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이 12월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둘째주 (3) -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16)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 이 자리로 인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을 지내며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돌아보니,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녀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성공과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12월 둘째주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둘째주 (4) - 새로운 희망의 기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19)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특히 대림절 둘째주를 맞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시려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마다 주님이 함께해주셨고,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어려웠던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상황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환경 문제와 전쟁으로 인한 고통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평화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북한과의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하시고, 통일의 그날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희망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해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둘째주 (5) - 감사와 헌신의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셨으며,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길로 인도하셨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2024년 한 해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살게 해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과 건강,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헌신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대림절 시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의 정신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려 하며,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하게 하시고, 작은 나눔과 봉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하나 되는 마음을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12월 둘째주부터 새해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날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 자세한 새벽예배 자료와 설교는 〔사랑의교회 새벽예배〕(https://www.sarang.org/tv/sermon.asp?sflag=sunpos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